
서 평

조선 화상 동순태로 본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상 — 조선화교사의 관점에서

[서평] 강진아(2018),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 동아시아 경제사: 동순태호 답걸생 이야기』, 아연출판부, 446쪽.

이 정 희*

1. ‘광둥’이라는 역사적 프레임에 천착

이 책의 서평을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고백한다. 김희신 (2018.6)의 이 책에 대한 품격 높은 서평이 먼저 나온 후이기도 하지만, 이 책은 일반 대중을 위해 풀어 쓴 책이면서도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전문서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수개월을 고민한 끝에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경위와 그 저본이 된 연구 성과를 먼저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려 한다. 그것이 독자의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했다.

저자는 근대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경제정책 분석으로 중국사 근대사 연구를 시작했다. 저자의 첫 연구 성과는 「1930년대 廣東省 陳濟棠 정권의 제당업 건설」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그 후 동경대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東京大) 문학부에서 동아시아사의 권위자인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 지도를 받았다. 저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보다 발전시켜 1930년대 광둥성의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2005년 출판한 『1930년대 중국의 중앙·지방·상인: 광둥성의 재정과 국가건설』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1930년대 광둥성 지방정부의 재정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납세자인 상인 간의 상호 협력 및 모순 관계를 밝혀냈다. 중국사 연구에서 가장 힘든 분야로 꼽히는 것이 경제사와 사상사라고 하는데, 저자는 바로 경제사적 관점에서 광둥성의 재정정책을 분석했다. 저자는 광둥성당안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광둥성의 재정정책을 세제, 행정, 금융 등의 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납세자 간의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를 분석해냈다.

이처럼 근대 광둥성의 경제사를 연구해 온 저자가 광둥 화상으로 조선 화상을 대표하는 동순태(同順泰, 1885~1937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¹⁾ 저자는 동순태의 존재를 일본 유학 중인 1998년에 처음으로 알았지만, 당시는 박사학위 논문 준비로 동순태 연구를 하지 못했다. 저자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교수로 재직할 때인 2002년, ‘동아시아와 한국’이라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순태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²⁾

저자의 동순태 관련 첫 연구 성과는 2004년에 발표된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재한화교기업 동순태(同順泰)(1874?-1937)의 사례」이다. 이 논문은 1차 자료를 활용한 본격적인 동순태 연구라기보다 동순태 관련 단편적인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하

1) 저자는 동순태호(同順泰號)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동순태’로 부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동순태’로 통일한다.

2) 강진아, 『동순태호: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1b, 서문.

지만, 이 논문은 국내외 학계에 동순태의 존재를 제대로 알린 최초의 연구성과였다.

저자의 동순태 연구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태래신(同泰來信)》 19책, 《진구각화창구단(進口各貨倉口單)》(8책, 1891년, 1895~1900년, 1903년), 《갑오각년부래화치본단(甲午各年埠來貨置本單)》(2책, 1894~1895년), 《을미래화치본(乙未來貨置本)》(1책, 1895년)을 해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자는 상기 자료 이외의 《동순태문서(同順泰文書)》 발굴 과정에서 2005년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을 뒤지다 《동순태왕복문서(同順泰往復文書)》(35책, 1890~1899년), 《동순태보호기(同順泰寶號記)》(1책, 1907년4월)를 우연히 발견하는 ‘꽤거’를 올렸다. 경성제국대학이 1933년과 1937년에 조선인 서적상으로부터 구매한 후, 자료실에 70여년간 잠자고 있던 사료를 세상에 끄집어 낸 저자의 공로는 실로 크다. 저자는 2007년에 이 자료의 해제를 단 논문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의 미답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華商 同順泰號關係文書」을 발표했다. 저자는 2017년 같은 고문헌자료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순태가 조선정부와 함께 1893년 공동 운영하던 통혜공사(通惠公司)의 주식 증서를 모아 둔 《윤선공사고표(輪船公司股票)》를 찾아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저자는 《동순태문서》뿐 아니라 동순태의 경영자인 담결생(譚傑生, 1853~1929년)의 후손 발굴과 인터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저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담결생의 후손을 인터뷰 했다. 첫 번째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담결생의 5남인 담정란(譚廷鑾)의 손자인 담영봉(譚永峰, 구글 본사 근무)을 만났다. 저자는 이 만남에서 1966년 서울 유네스코회관 부지 소송에서 승소한 9남 담정택(譚廷澤)이 남긴 회고록, 《선부담공결생전기(先父譚公傑生傳記)》를 입수했다.

두 번째는 2014년 1월 담결생의 고향인 광동성 고요현(高要縣) 금리

진(金利鎭)을 방문하여 장남 담정호(譚廷瑚)의 증손인 담영화(譚永和)를 만나, 조선에서 귀국한 담걸생 후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어냈다.

세 번째는 2017년 9월 담영봉을 통해 서울에서 5남 담정란의 장남인 담내량(譚乃亮)의 딸 담앵범(譚櫻凡, 호주 이민국 근무) 부부를 만났다. 저자는 담앵범을 통해 담내량의 부인이 청말 사상가인 양도(楊度, 1875~1932년)의 막내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네 번째는 2017년 12월 광동성 중산대학(中山大學) 소재 개풍(凱豐)호텔에서 10남 담정황(譚廷惶)의 유복자인 담내걸(譚乃傑)을 인터뷰 했다. 담정황은 중일전쟁 때 공군으로 참전했다가 사망했다. 저자는 이 인터뷰를 통해 담정황의 부인이 홍콩상해은행 인천지점의 경리(經理)인 오발군(吳拔群)의 장녀 오모정(吳慕貞)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368~370쪽).

저자는 《동순태문서》 분석과 담걸생 후손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실을 종합하여 2011년에 『동순태호: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을 출판했다. 이 전문서는 이 책의 주요한 저본의 하나이다. 저자는 이 책 출판 후 광동 화상 동순태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화교 전체로 관심 영역을 확대시켜 연구를 진행했다. 논문 「만주사변 전후 조선화교 문제의 양상: 朝鮮總督府 外事課와 在韓中國領事館 간 왕복 문서를 중심으로」(2012년)은 1931년 화교배척사건을 연구한 것이며,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입국 관리와 중국 언론」(2013년)은 화교 노동자 문제를 검토한 논고이다.

또 하나 저자의 학술 활동 가운데 주목할 것은 일본의 중국학 관련 우수 저작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했다는 점이다.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글로벌 시대, 치열했던 한중일 관계사 400년』(2009년)은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의 저작을 번역한 것이다. 조선이 구한말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속국과 자주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을 한중일의 관계사의 측면에서 그려낸 역서이다.³⁾ 『중국경제사』(2016년)는 오카모토

3) 이 역서의 원본은 岡本隆司, 『世界のなかの日清韓關係史: 交隣と屬國, 自主と獨立』, 講談社選書メチエ, 2008이다. 이 책은 오카모토 다카시가 2004년 출판한 『屬

다카시를 비롯한 일본의 중국학 연구자가 총출동하여 고대부터 현재까지 중국경제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의 번역서이다.⁴⁾ 저자는 이러한 번역서 발간을 통해 일본의 중국연구 성과를 국내에 소개했을 뿐 아니라 이 책에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큰 특징의 하나인 각 장 뒤에 배치한 ‘테마’는 『중국경제사』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2011년 출판의 전문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조선화교에 대한 추가 연구 성과,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된 조선화교 관련 연구 성과를 최대한 섭렵하여 쓴 대중서라 할 수 있다.

2. 책의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문제를 ‘테마’로 담아내고 있다. ‘테마’는 총 29개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이주 관련 중요 주제를 알기 쉽게 그리고 주요 문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는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부유한 이단의 땅: 광둥」은 담결생이 광둥성 고요현 금리촌(金利村)에서 탄생한 1853년을 전후한 시기,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소개한다. 저자가 ‘광둥’ 전문가인 만큼 서술이 매우 명쾌하다. 광둥성은 해금의 시대 중국 유일의 대외무역의 합법적 무역항인 광주(廣州)가 자리한 곳으로 아편전쟁 이전 이미 다수의 양행(洋行)이 설립되어 활동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1842년 남경조약(南京條約) 체결 후 상해가 개

國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學出版會를 대중서로 만든 것이다.

4) 원본은 岡本隆司編, 『中國經濟史』,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이다.

항되고, 태평천국의 난과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광주의 양행이 민중의 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양행은 광주에서 상해로 대거 이동했다. 이때 양행의 광동인 매판도 함께 이주했다. 저자는 담결생이 태어난 1853년을 상해가 양행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던 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이 광주에서 상해로 이동하고 있던 때로 의미를 부여한다.

2장 「성공의 첫 사다리에 발을 디디다: 상해 시절」은 담결생이 상해로 이주하여 점원으로 5~6년간 일한 시기를 소개한다. 담결생은 1879년 경고향 금리촌에서 상해로 이주했으며, 자형인 양륜경(梁綸卿, ?-1924)이 경영하는 동태호(同泰號)의 점원으로 일했다. 양륜경은 대표적인 광동 매판인 정관응(鄭觀應, 1842-1922)과 절친의 관계였다. 정관응은 윤선초 상국 총판직을 맡는 등 대표적인 광동 매판이기 때문에 양륜경은 그의 광동 인적 네트워크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이 네트워크는 처남 담결생의 동순태 경영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3장 「조선으로 향하는 길: 양륜경의 조선 투자와 조선의 광동인들」은 동순태 설립 과정과 조력자인 광동인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양륜경은 담결생과 그의 형 담청호(譚晴湖)를 파견하여 1885년 인천에, 1886년 한성에 상해 동태호의 연호(聯號)로서 동순태를 설립했다. 이후 동순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데 광동성 출신으로 조선에서 영사관원으로 일하던 당소의(唐紹儀), 주수신(周壽臣), 오중현(吳仲賢)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4장 「조선에서 우뚝 서다: 개항 초기 조선과 동순태호」는 동순태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다. 동순태는 개항 초기 서울에 한성본호, 인천에 인천본호를 두고 상해 동태호를 통해 직물류, 서양잡화류를 주로 수입하고, 조선산 홍삼, 금, 은 등을 수출했다. 동순태는 요코하마, 고베, 연태, 블라디보스토크에 광동 화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주조선 청조 영사관원 광동인맥을 통해 1892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정부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회사인 통혜공사(通惠公司)를

설립하는 특혜를 누렸다. 저자는 청일전쟁 이전 동순태는 정상(政商)의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5장 「전화 속으로: 청일전쟁 시기의 담걸생」은 동순태가 청일전쟁 이후 전후 호황으로 사업상 큰 성공을 거둔 사실을 소개한다. 청일전쟁 발발로 조선의 화상 대부분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그곳에서 전황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동순태는 재빠르게 영업을 재개했다. 동순태는 조선의 왕성한 수요에 맞춰 상해에서 직물류 등을 대량으로 수입, 1895년 한 해 조선의 대중국 수입총액의 23.1%를 수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저자는 이러한 동순태와 담걸생의 경영을 위험을 기회로 삼는 벤처정신에서 찾는다.

6장 「구조조정의 시대: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남기」는 전후 호황 이후 찾아온 불황 시기에 동순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소개한다. 동순태의 불황 대처 방법은 한성과 인천 이외 조선의 내지로 진출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내지에서 일본에 수출할 미곡을 매입했다. 또한 새롭게 개항장으로 지정된 목포, 진남포, 군산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여기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복권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펴 큰 이익을 얻었다. 반면, 직물류의 수입은 이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무역회사로서의 지위는 하락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동순태의 현지 토착화 전략으로 긍정적으로 분석한다.

7장 「장안 제일의 부자가 된 담걸생」은 일제강점기 동순태의 경영상황에 대해 소개한다. 동순태는 무역업보다 운수업, 부동산업에 집중했다. 1920년대 미카도 택시회사를 설립하여 서울 택시의 7할을 차지했고, 서울 시내 400~500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동순태 한성본호가 자리한 서울 을지로 2가의 1,508평 부동산은 3층 붉은 벽돌건물로 엄청난 시가를 호가했다. 담걸생이 1966년 소송에서 승소하여 되찾은 땅이다. 담걸생은 조선 화상 최고의 갑부로 경성중화총상회 회장을 지냈다.

8장 「실의 속에 눈을 감다」는 동순태가 쇠퇴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저자는 2남 담정곤(譚廷琨)과 3남 담정림(譚廷琳)이 유흥에 빠져 소유 부동산을 은행과 고리대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거액을 빌려 미두거래소(米豆去來所)에 투기, 140여만 원의 부채를 진 것을 쇠퇴의 결정적 계기로 분석했다. 이 위기에서 담결생의 4녀 담수란(譚秀鸞)의 시아버지인 상해의 정백소(鄭伯昭)의 도움으로 부도를 넘겼지만 예전의 동순태의 영화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담결생은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1929년 10월 20일 77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1930년 고향에 운구되어 안장되었다.

9장 「조선이여 안녕!: 동순태호의 철수」는 중일전쟁 발발 후 동순태가 조선에서 철수한 사실과 그 이후의 뒷이야기를 정리한다. 담정택은 1937년 9월 일가와 함께 상해로 철수, 사실상 동순태는 문을 닫았다. 동순태는 1936년 한성본점 이외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은행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 담결생의 자녀는 모두 조선을 떠나 홍콩, 광둥성 고향, 상해, 홍콩 등지서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간다.

10장 「남은 이야기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담결생 후손의 이야기를 담는다. 담정택은 1966년 한성본호 부동산을 되찾은 후 미국으로 이주했다. 저자는 4차례에 걸쳐 만난 담결생 후손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동순태의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천착해 온 ‘광둥’의 사람과 자본은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시기는 홍콩으로, 홍콩이 일본에 점령당한 후는 다시 상해로 역류하고, 상해가 공산화 된 이후는 홍콩으로 대거 이동했다.

11장 「동아시아 이민사 속의 재한 화교」는 해방 이후 한국화교에 대해 소개한다. 저자는 미군정기 때 ‘연합국의 국민’으로 우대를 받으면서 대중화권 무역을 독점한 이야기, 남북한의 민족주의로 쇠퇴한 화교경제와 해외 재이주, 서민문화의 대표격인 중화요리점에 얽힌 뒷이야기 등을

풀어낸다.

3. 동순태 몰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의 2011년 책과 이번 책을 읽으면서 가진 의문의 하나는 동순태의 몰락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담결생의 2남 담정곤과 3남 담정림이 1920년대 유흥과 투기에 빠져 금융기관에 140여만 원의 부채를 진 것을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295~299쪽). 이 사건이 동순태의 몰락을 촉진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순태의 몰락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동순태의 사업이 1900년대에 들어 전한기를 맞이했다. 이전의 직물 수입 위주의 수입무역에서 탈피하여 서양잡화와 약재의 수입판매, 복권판매업으로 사업을 다각화 했다(230~231쪽). 일제강점 이후, 동순태는 직물 수입무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기존의 서양잡화와 약재의 수입판매에다 택시와 부동산 사업 등으로 사업의 중심이 옮겨졌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조선 화상 경제력의 근간은 직물의 수입과 판매에 있었다. 조선에서 화상 경영의 주단포목상점은 1930년에 2,114개로 전체 상점수의 2할을 차지했으며, 전체 상점 판매총액의 3할을 각각 차지했다. 일제강점기 곡물상과 함께 2대 상업의 한 축을 이루던 주단포목상점 분야에서 이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화상 경영의 주단포목상점은 거의 대부분 산동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으며 대형 상점의 경영자는 각 지역 화교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다.⁵⁾

동순태는 개항기 때 직물 수입에서 산동 화상을 의식한 흔적이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다. 청일전쟁 발발 후 직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담

5) 줄져, 『한반도 화교사: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동아시아, 2018, 제1장을 참조.

결생은 조선의 직물 수입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걱정되는 것은 산둥 놈(山東牛)들”이라고 말하면서 산둥 화상 원생호(元生號)가 새로 인천과 한성에 가게를 연다는 소문을 전하면서 경계했다(181쪽). 조선의 산둥 화상은 청일전쟁 발발 후 거의 고향으로 피난을 갔다. 산둥성이 전쟁터가 되면서 고향으로 피난을 떠난 화상의 조선 복귀가 지체되고 있었다. 이 책은 앞에서 동순태가 청일전쟁 직후 호황 때 큰 이익을 보았다고 소개했는데, 산둥 화상의 복귀 지연에 따른 독점 수입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청일전쟁 이후의 호황이 불황으로 전환되었을 때, 상해 동태호의 양륜경은 담결생이 새로운 개항장에 지점을 개설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업 확대 계획에 위험부담이 크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때 담결생은 양륜경에게 “이렇게 소극적인 경영으로는 결국 산둥방에 뒤쳐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사실도 산둥 화상과의 경쟁을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205쪽).

담결생이 그토록 경계하던 산둥 화상은 개항 초기 영국산 면직물을 주로 수입했지만, 점차 일본산 면직물에 비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자, 일본산 면직물을 오사카(大阪)의 산둥 화상을 통해 수입했다. 동순태는 상해 동태호를 통해 중국산 마직물(모시, 삼베)과 견직물(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했는데, 산둥 화상도 상해에 이들 제품 수입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었다. 서울과 인천에 본점을 둔 산둥 화상은 상해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지점을 개설하여 마직물과 견직물을 대량으로 수입했으며, 상해의 산둥 화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상해에는 조선에 직물을 수출하는 산둥 화상과 조선에서 상해에 파견된 산둥 화상이 선방 공회(鮮幫公會)라는 동업조직을 조직하여 활동할 정도였다.⁶⁾

한편, 조선의 산둥 화상은 독점적으로 수입한 직물을 조선 각지에 설립된 화상 도매상과 소매상, 그리고 행상을 통해 거미집과 같은 판매 네

6) 출처(2018), 제2장을 참조.

트위크를 구축했다.⁷⁾ 그러나 동순태와 같은 광동 화상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없었다. 조선에서 광동인의 인구는 1931년 10월 현재 32호, 196명에 불과했다. 조선화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 0.3%에 불과했다. 반면 산동인은 전체 호수와 인구에서 81%, 8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⁸⁾ 동순태는 이러한 조선 내 직물 판매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직물을 수입해도 산동 화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동순태가 일제강점기 화상 경제의 주요한 기반이던 직물수입 및 판매에서 철수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산동 화상과의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4. 저자와 이시카와 료타(石川亮太)의 동순태 연구 비교

저자의 동순태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학자 이시카와 료타(石川亮太)의 동순태 연구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시카와의 동순태 연구 성과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학자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소장 《동순태문서》를 1차 자료로 동순태 연구를 시작했다. 저자는 살펴본 대로 중국근대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동순태를 연구한 반면, 이시카와는 조선근대사의 관점에서 동순태를 연구한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서로의 관심과 관점이 달라 생산된 연구 성과에 약간의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이시카와의 『근대아시아시장과 조선: 개항·화상·제국(近代アジア市場アジアと朝鮮: 開港・華商・帝國)』(2016년)은 자신의 연구의 도달

7) 출처(2018), 제2장과 제3장 참조.

8) 朝鮮總督府警務局, 『外事關係統計』, 朝鮮總督府, 1931.10, 9~10쪽.

점을 이루는 책이다. 이 책은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걸친 약 40년간의 시간축, 조선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만주, 홍콩, 극동러시아를 망라한 동아시아 지역을 공간축으로 설정, 화상을 통해 개항기 조선이 동아시아 광역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분석했다. 이시카와는 조선근대사 연구자이면서도 개항기 조선의 상업, 유통, 금융 시스템을 조선 일국의 시점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광역 지역시장에 놓고 파악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시카와의 연구는 동순태 연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의 책 가운데 동순태를 검토한 내용은 제Ⅱ부 「조선 화상의 무역과 다각적 네트워크: 광동 상호 동순태의 사례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제5장의 제목은 「동순태의 창설과 네트워크 형성」, 제6장은 「동순태의 대 상해무역과 결제시스템: 청일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제7장은 「동순태의 내지통상 활동과 그 배경」, 제8장은 「심화하는 조일관계에 대한 대응: 청일전쟁 이후의 동순태」, 제Ⅱ부의 보론은 「동순태문서에 대해」이다. 책 전체 12개의 장 가운데 동순태와 관련한 장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개의 장(보론 포함)이다.

저자(강진아)의 동순태 관련 전문서인 『동순태호: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제1장)은 「재한 화교사 연구와 동순태문서」, 제2장은 「동순태호의 역사」, 제3장은 「동아시아 역내의 광동네트워크와 동순태호」, 제4장은 「『동순태보호기』로 살펴본 1907년 한중무역의 존재 형태」, 제5장은 「동순태호와 한말 복권 사업」, 제6장은 「동순태호의 눈에 비친 근대 조선과 타자인식」이다.

두 학자의 동순태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개항기, 서울대 소장 《동순태문서》를 공통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음은 두 책의 장의 제목을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두 학자의 전문 영역이 중국근대사와 조선근대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순태를 일국의 관점이 아니라 광동 화상의 동아시아 광역 네트워크에 주목하면서 분석한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상이한 점도 발견된다. 이시카와는 동순태의 내지통상 활동에 주목했다. 그는 동순태가 내지의 조선인 중개인을 통해 수출물품인 쌀, 잡곡, 홍삼을 구매했고, 전주, 개성, 해주에는 상점이 아니라 출장원을 파견하여 조선인 중개인과 거래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저자(강진아)는 청일전쟁 이후 동순태의 불황극복대책으로 중국의 복권을 조선에 수입하는 활동에 주력한 사실을 중요시하여 분석했다. 이시카와는 개항기 조선 시장을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외국인 상인의 내지통상문제에 착안한 반면, 저자는 청말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의 ‘구세주’로 불리던 복권사업에 착안한 것은, 두 학자의 전문 연구 분야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학자의 상이한 시각에 의한 각각의 연구가 동순태의 경영활동을 보다 다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독자 입장에선 매우 행복한 일이다.

5. 동순태 연구의 과제

동순태 연구의 한계는 《동순태문서》와 관련이 있다. 서울대 소장 《동순태문서》는 총 7종 67책에 달하지만 문서의 기록 시기는 가장 빠른 것은 1894년, 가장 늦은 것은 1907년이다. 1894년 이전과 1907년 이후의 문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1893년 발행의 《윤선공사고표(輪船公司股票)》를 예외로 하면 말이다. 즉, 동순태가 설립된 1885년부터 1893년까지의 시기, 1908년부터 1937년 철수하기까지의 시기에 동순태의 경영 상태를 기록한 문서가 없다. 원래 이 시기의 문서가 없었던 것인지, 있었지만 소실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동순태는 일제강점기 직물수입상에서 완전히 철수한 후, 택시업, 부동산업, 서양잡화 및 한약재 판매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하한 이상,

각 업종의 경영상황을 기록한 문서나 장부가 없을 리 없다. 경성제국대학이 조선인 서적상 박봉수와 이성의로부터 1933년부터 193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담결생 사망 후 동순태가 거의 해체 수순에 들어간 시기와 겹친다. 저자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서 《동순태문서》를 추가로 발견한 것처럼 어딘가에 잠자고 있을지 모른다. 《동순태문서》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견은 동순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동순태의 역사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동순태의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을 조선화교사회의 범주 안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학자는 동순태를 동아시아 광동방 네트워크라는 광역에서 동순태의 경영활동을 분석하면서도 조선의 산동방 화상, 남빙⁹⁾ 화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화교의 경제는 산동 화상이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동순태와 산동방 화상 간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9) 남빙(南甁)은 안휘성, 절강성, 강소성 출신 화교의 동향단체이다.

참고문헌

- 강진아(2016), 「근대 아시아 해양과 과국적(跨國的) 상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양행(洋行)’에서 ‘구교(歐僑)’로」, 『역사학보』 232권, 아세아문화사.
- _____(2014a), 「20세기 廣東 화교 자본의 환류와 대중국 투자」, 『동양사학연구』 127, 동양사학회.
- _____(2014b), 「청일전쟁 시기 華商 同順泰號의 영업 활동: 변경에서의 愛國과 致富」, 『중국근현대사연구』 64,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 _____(2012), 「만주사변 전후 조선화교 문제의 양상: 朝鮮總督府 外事課와 在韓國領事館 간 왕복 문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동양사학회.
- _____(2011a),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砂糖의 유통 구조와 변동: 朝鮮華商 同順泰號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2,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 _____(2011b), 『동순태호: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 경북대학교출판부.
- _____(2009),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 _____(2007),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 79 (여름호), 역사비평사.
- _____(2005),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 광둥성의 재정과 국가건설』, 서울대출판부.
- _____(2004), 『中日무역마찰의 전개와 朝中關係의 변화: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_____(2004),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재한화교기업 동순태(同順泰)(1874?-1937)의 사례」, 『경북사학』 27, 경북사학회.
- 김희신(2018), 「書評: 강진아,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동아시아 경제사: 동순태호 답달생 이야기』, 아연출판부, 2018」, 『중국근현대사연구』 78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동아시아』.
- 오카모토 다카시 지음, 강진아 옮김(2009),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글로벌 시대, 치열했던 한중일 관계사 400년』, 소와당.

오카모토 다카시 등 지음, 강진아 옮김(2016), 『중국경제사』, 경북대학교출판부.
石川亮太(2016), 『近代アジア市場アジアと朝鮮: 開港・華商・帝國』, 名古屋
大學出版社.

岡本隆司(2008), 『世界のなかの日清韓關係史: 交隣と屬國, 自主と獨立』, 講
談社選書メチエ.

_____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
古屋大學出版會.

岡本隆司編(2013), 『中國經濟史』, 名古屋大學出版會.

朝鮮總督府警務局(1931), 『外事關係統計』, 朝鮮總督府.